

한국 현지 리포트-한국의 MZ세대

여러분은 ‘MZ세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본의 Z세대보다 조금 넓은 범위인 밀레니엄 세대까지 포함한 MZ세대는 한국의 젊음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물론 그 세대의 젊은이와 그 문화를 지칭하는 말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40대 중반인 필자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X세대¹’, ‘오렌지족²’이라는 말이 유행해, 저 역시도 X세대라는 인식 속에서 20대를 보냈지만 지금의 MZ세대를 지켜보면서 ‘요즘 애들은 다르구나..’라며 ‘라떼³’의 기억을 소환해보곤 합니다.

MZ세대의 특징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로 대변되듯 스마트폰과 인터넷 세상 속에서 태어나 자라났다는 점, 소비의 측면에서는 무작정 최신 트렌드를 좇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경험을 추구하며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한다는 점, 또한 나만의 맞춤형 소비, 환경,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를 하려는 점, 그 외에도 일상 생활 속에서 ‘재미’라는 키워드를 추구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월급만 많다면 잔업까지 불사하겠다! 쉬지 말고 일해라!는 가치관에 익숙한 X세대인 저와 달리 요즘 MZ세대는 높은 연봉이나 성취보다는 삶의 여유나 공정, 행복 등의 가치를 더 중요시 한다고 하니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상하관계가 뚜렷한 한국사회에서 MZ세대들은 조직보다는 개인을, 또한 수평적인 문화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조금만 옛날 얘기를 꺼내려 하면 ‘또 라떼 시작됐네~’라는 분위기가.

요즘은 MZ세대가 소비의 중심에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도 신기하게 느끼는 것은 어르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건강보조식품의 주요 소비층이 MZ세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주가는 드럭스토어에도 MZ세대를 위한 홍삼⁴, 콜라겐,

¹ 세대적으로는 19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한다.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버블 경제 상황을 경험하였고 개성을 중시한 젊은이 문화를 발신하였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탈피하여 컴퓨터와 삐삐, 휴대전화 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디지털 세대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² 부유층이 거주하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를 발신한 젊은이를 부르는 말. 주로 고가 브랜드의 옷이나 외제차,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즐기며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³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인 한국어 ‘나 때’와 같은 발음으로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라며 윗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비꼬는 표현.

⁴ 인삼을 껍질째 찌서 햇볕에 말린 것으로 색이 붉어 홍삼이라 불린다.

눈 건강제, 각종 영양제 등이 즐비합니다. 아니 40대 중반인 저도 아직 안 먹는데 말이죠. 자신의 건강을 젊었을 때부터 돌보려는 그들의 노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면서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건 왜일까요? X세대보다 분명 시대의 최첨단을 살고 있는 MZ세대들이지만, 정보 홍수의 시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히려 길을 잃거나 끊임없이 '멋진' 모습을 SMS에 올리다 지쳐버리는 건 아닌지 슬쩍 걱정이 됩니다. 이 역시 그란데 사이즈 'X세대 라떼' 한 사발이겠지요.

정경진(부산대학교)